

# “쓰러진 벼에 새싹 돋는데 보험 안된다니...속에서 천불 나요”

함평 대동면 운교리 수밭아 피해현장 가보니

## 벼 물에 잠기고 녹색모 30cm 자라...수확 못해 “수밭아 피해대책 세워달라” 성난 농심 거리로

“농사를 잘 못 짓는 것도 죄인입니다. 쓰러진 나라를 보고 있다면 남 부끄러워서 얼굴 들고 다니기가 창피합니다. 얼른 갈아엎어 버려야 하는데...”

24일 오후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에 사는 조강우(63)씨는 자신의 1652.9㎡(500평) 논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멈추지 못했다. 조씨의 논엔 물에 잠긴 벼가 90% 이상 쓰러진 채 고스란히 누워 있었다. 논은 물이 침범거리 정도로 흥건했다. 조씨가 쓰러진 벼 이삭 한 움큼을 쥐어 보이자 벼 낱알에선 새싹이 트고 있었다.

심지어 30cm 이상 높이의 짙은 녹색의 모가 자라난 곳도 많았다. 마치 봄철 모내기 막 마친 논을 연상케 했다. 조씨가 수밭아(總發芽·벼 이삭에서 싹이 나는 현상)로 피해를 본 면적은 4만9586.7㎡(1만5000평) 중 1만5206.6㎡(4600평)나 됐다. 수밭아 피해를 입은 곳은 이 농가 뿐만

이 아니었다. 한 집 건너 한 집 꼴로 피해가 있을 정도로 피해는 심각했다. 이날 현재 함평군 전체 벼농사 5027농가(전체면적 7905ha) 중 피해농가는 47.8%인 2253농가(피해면적 3780ha)나 된다.

농민들 사이에선 똑바로 서 있는 나라에서도 수밭아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본격적인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가을비가 그치지 않았고, 기온마저 예년보다 높아 물이 고인 논바닥에 쓰러지지 않은 벼에서도 싹이 돋아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다더라도 병해충에 의한 피해가 아닌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는 전체 5027농가 중 32.52%인 1635농가. 조씨는 “지난달부터 두 차례에 걸쳐 농협 측에서 피해 실사를 다녀갔는데, 병해충 피해가 아닌 이상 쓰러진 벼

의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면서 “가입은 중요하면서 실제 피해를 입으면 보상 조건이 까다로워 받기가 어려운데, 누가 가입을 하겠느냐. 나는 내년부터 재해보험에 절대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난 농심(農心)은 이날 현실적인 ‘수밭아’ 피해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함평군농민회 50여명은 이날 군청 앞길에서 농협 RPC 벼 수매 등급을 3등급 체제에서 2등급 체제로 바꾼 뒤 피해 나락을 전량 수매해달라며 나락 적재시위를 벌였다.

현행 등급은 1등급(3만5000원)·2등급(3만3000원)·3등급(2만8000원)이지만 농협 RPC 측이 권장보급한 종자(신동진 등)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만큼 3등급(등외)을 2등급으로 상향해서 받아달라는 것이다.

함평군농민회 김광수(44) 사무국장은 “인근 시·군은 수매등급을 1·2등급으로만 구분해서 수매한다고 하는데, 유독 이 지역만 수매등급을 세분화한 뒤 2~3등급과 가격 차이를 크게 해 할값에 사들이고 있다”며 “농민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함평=황운학기자 hwang@



24일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조강우씨의 논. 조씨가 수밭아 피해가 극심한 벼를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미르·K스포츠 수사팀’에 특수부 검사 투입

### 수사 강도 높여...‘최순실 심복’ 소환 조사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모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검찰이 대형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특수부서 검사들을 추가로 투입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 검사 4명으로 운영되던 ‘미르·K스포츠 수사팀’에 3차장 산하 특수수사 부서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을 꾸렸다. 추가로 합류한 검사는 공정거래조정제조사부 김민형 부부장(사법연수원 31기)과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2부 소속 검사 1명씩이다.

주임검사인 한 부장검사를 보좌해 팀을 이끌 김 부부장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의 추적팀장 출신으로 당시 직접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의 압류에 나선 이력이 있다.

수사팀 확대는 언론 보도와 정치권 등을 통해 최순실(60·최서원외로 개명)씨와 정유라(20·개명 전 정유연)씨 모녀를

둘러싼 의혹이 불어나 자금 추적 등 부패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 검사의 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검찰 수사는 주요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면서 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을 짚어보는 단계를 밟고 있다. 사건 초기엔 두 재단의 설립·모금 경위에 관심이 쏠렸지만 비텍스포츠, 더블루케이 등 최씨 모녀가 소유한 독립 법인들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최씨가 측근 인사들을 앞세워 두 재단을 사실상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정유구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 김형수 미르재단 전 이사장,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 등 주요 참고인들을 소환해 최씨와 또다른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차은택(47) 광고 감독의 개입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최씨의 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K스포츠재단 인제 양성본부 박모 과장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과장은 노승일 부장과 함께

올해 1월 K스포츠재단에 들어가 최씨의 최측근으로 각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들이 최씨가 8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운용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검찰은 곧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대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설립과 모금 과정에서 청와대 혹은 최씨, 차씨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최씨 모녀가 독일에서 최소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프랑크푸르트 인근의 비테 타우누스 호텔과 주택 3채 등을 매입하고 수행원 10여명을 두고 1년 이상 체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부동산 구입 및 훈련 자금을 옮기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을 가능성 등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독일 예거호프 스파장 근처에서 최씨 모녀가 한 살베기 아기를 데리고 생활한 것으로 알려진 단독주택의 소유주가 정유라(20)씨로 나타나 대학생 신분인 정씨가 수억원대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포탈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관심사다. /연합뉴스

## 광주 상무소각장 기금 30억 15년만에 활용 길 열려

###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키로

광주 상무소각장 인근 피해주민을 위한 기금 중 30억원의 활용방안이 열렸다.

그러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놓고 주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상무지구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주민 지원사업비로 기금 30억원과 협의체 운영비 9000만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15년이 넘도록 낫잡만 자고 있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서 의의

가 적지 않다.

이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축전 및 주변 지역지역 법률에 따라 조성한 것으로 현재 63억원 남짓이다. 이 기금은 시 출연금, 폐기물 반입 수수료,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주민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등 공적인 곳에 사용해야 한다. 2008년 23억원을 비롯해 매년 적게는 2억~3억원씩, 많게는 7억~8억원씩 적립했다.

애초 기금 배분비율을 놓고 반경 300m 이내 주민과 그 이외 주민 간 이견이 커 10년 넘게 집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8월 소각장 주변 지역민을 위한 기금 사용자

등을 결정할 주민지원협의체(제5기)가 구성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상무소각장 피해주민은 지난 4월 결정 고시 기준으로 소각장 반경 1.3km, 상무지역 내 14개 아파트 단지, 9033가구다.

상무소각장은 광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쓰레기)을 1일 320t 처리하는 시설로 설치, 743억원이 투입됐으며 2001년 가동했다. 남구 양과동에 폐기물고형화시설(RDF)이 들어서는 대로 연발 폐쇄한다.

시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사용자 등 세부적인 것을 결정할 뒤 공적인 내용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

## 고의적 기업범죄 ‘징벌적’ 위자료 물린다

### 가습기 살균제 사망 9억...대형 재난 6억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 기업범죄로 사람이 숨진 경우 피해자에게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대형 재난은 6억원, 교통사고는 3억원, 명예훼손은 3억원까지 배상하게 된다.

대법원은 2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에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고 이처럼 불법행위 유형별로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새 방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정해 기존의 위자료 범위를

크게 넘는 일종의 ‘징벌적’ 개념을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영리적 불법행위 ▲ 명예훼손 ▲ 대형 재난사고 ▲ 교통사고 등 4개다.

새 위자료 산정방식은 3단계로 구성된다.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액을 마련하고, 법원이 정한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준금액을 2배로 늘린다. 이후 일반가중·감경사유가 있다면 기준액의 최대 50%를 증액 또는 감액한다. /연합뉴스

등록번호: 전남-목포-국제-2013-001

#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십시오.  
※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십시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사형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1247-7700  
0621372-9777

※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 혈당조절

##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ATP10골드** 대한민국 특허 제0522532호

ATP10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 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노특허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포자제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 농성동 무등산타워 10층 상가매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뷔페식당·사무실·병원 등 최적입지

▶수익계약진행  
감정가 : 32억원  
매매가 : 22억원

▶전용면적 : 1,070㎡(10층 전체)

국제자산신탁  
02-5202-3087

완도금일수협  
062-364-2018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 직장인 스피치

시(詩) 낭송 감성 스피치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정확한 문법(사)를 지체한 안내를 제공하여 드립니다.